

시인의 마을

모든 언어는 지나가는 고원(高原)이다

비문(非文)은 문법이나 어법(語法)에 어긋나는 문장이란 의미의 경사나, 분장의 기본은 문법에 맞게 적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문자에 맞지 않은 문장이 우리를 감동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 문장작업에서 비문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환영받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시작은 첫 분장을 미문으로 적으면 독자의 반응은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박여범

시인 ·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김혜천 시인의 '첫 분장을 미문으로 적는다' '시시맨'이 2022년 제2회 시산책 창작지원금 공모 당선시작(시산책 시흥시인선18)이 출간되었다. 시인은 2013년 '시시맨'로 등단하여 이어서 큰화상(2017), 푸른시학살(2020), 시시맨 창작지원금 수혜다도 인문강사(2022)로 활동 중이다. "김혜천 시인은 세계의 유희성에 주목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세계는 겁 제곱 병정식처럼 승식한다. 불연성의 균형을 깨뜨리는 세계는 늘 탄생의 새로운 문턱에 있다. 경계를 넘어가는 언어는 포획을 거부한다. 시인은 완결된 문장을 거부한다. 시는 종간의 언어가 아니다. 생명의 언어이다. 그러므로 이 시집의 제목처럼 시인이 적는 첫 분장은 늘

비문이다. 비문은 암시를 거부하는 언어이며,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언어이고, 도래할 근장을 품꾸는 언어이다. 김혜천은 정수준의 순간이주를 꼽는다. 그녀에게 모든 언어는 지나가는 고원(高原)이다. 그녀는 유목민처럼 세계를 유랑하고, 세계는 그녀를 유랑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체와 대상은 아케비처럼 고정된 형식을 갖지 않는다. 움직이고 흐르는 것뿐이 '차이'를 만든다. 나의 것들끼리의 접속이 일어나는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동일성은 아메비의 위족처럼 순간적으로만 존재한다. 동일성은 차이의 이질성의 선광에 불과하다. 시인은 산위하는 양쪽의 언어에 매혹당한다. 세로는 증식되고, 형태는 변화하며, 존재는 생성된

다. 김혜천은 이 무한 형태 변용(metamorphosis)의 세계에 주목한다. 이 시집은 끊임없이 부화하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유목 언어의 기록이다. 오만석(문학평론가 · 단국대 교수)

몽중에 나에게 온 이 문장은 선사시대를 헤엄쳐 온 해독되지 못한 아사 직전의 물고기 붉은 통증(痛點)이 피덕피덕 잠을 깨운다. 멈춰버린 농담처럼 행간 속에 가둔 미명의 날들 바늘처럼 달라붙은 남루를 벗긴다 쓰나미 잠들고 산란의 바다를 만날 때까지 그늘마다 검은꽃이 무성하게 피었다. 별밤에 꿈지락거리는 난해한 기호들

검은꽃의 재해석은 물어두기로부터. 낫을 되찾고 싶던 김혜천, '첫 분장을 미문으로 적는다' 이제 거침없이 심해를 헤엄칠 수 있겠다. 김혜천, '첫 분장을 미문으로 적는다' 권근, 위익 책, 18·19쪽.

이 시를 감상하고 나서 수백여 지인에게 추천하고 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 첫째, 독자의 관점에서 몽중에 나에게 온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늘마다 검은꽃이 무성하게 피었다는 것에서 그늘과 검은꽃이 상징하는 것은? 셋째, 미문으로 적는다는 제목으로 한 편의 시를 써 보자. 이상과 같이, 김혜천 시인은 모든 언어는 지나가는 고원(高原)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첫 분장을 비문으로 멈춰버린 농담처럼 행간 속에 가둔 미명의 날들 바늘처럼 달라붙은 남루를 벗긴다 쓰나미 잠들고 산란의 바다를 만날 때까지 그늘마다 검은꽃이 무성하게 피었다. 별밤에 꿈지락거리는 난해한 기호들

사설

동상면의 양민학살 비극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6.25 전쟁 양민학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정책방송(KTV)이 최근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편에서 동상면 관내 아픈 역사를 다루면서 비롯됐다. KTV는 지난 3월 27일과 29일 '완주 민간인 희생사건'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민간인 희생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 관심을 끌었다. KTV 제작진은 무고하게 희생된 비극의 현장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을 조명했다.

과 슬픔은 삼연처럼 더 깊어 가리았어 있다. 최귀호 전 동상면장(86)은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이다. 그는 "빨치산에 의해 공직생활을 했던 지역 유지들이 많이 희생되었고, 미군 통역을 했던 아버지도 인민위원회에 끌려가 처참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며 "그날의 고통스런 기억이 평생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동상면은 6.25 당시 빨치산 활동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립으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당시면 소재지였던 신월리 원산마을은 좌익과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번갈아가며 지행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웃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비극의 현장은 현재 동상저수지로 변해 물에 잠겼다. 1,000여 명 주민들의 아픔

부역자로 몰려 화살당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신원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진실 규명에 나섰다. 최귀호 전 면장을 중심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1건의 희생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 아픈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 추모비 건립과 추혼탑 이전도 추진하기 바란다.

부동산 투기 수사 문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 투기 의혹으로 촉발됐다.

에 152명이다. 토지불법형질변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행위'로 42건에 6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86건에 177명을 수사했다.

수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도, 14개 시·군 공무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등까지 확대됐다. 전북의 지자체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을 자체 조사했다.

경찰은 내부 정보 부정 이용행위 25건에 90명(구속 2명), 부동산 투기행위 39건에 41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64건에 129명 등 총 122건에 260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LH 전북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LH직원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부터 불법 부동산 분양권 판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간 부동산 관리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다.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한 관계 기관의 대처, 영농 계획서만 의존한 농지법의 허점, 농지구입 후 지속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 소홀도 거론됐다.

지난 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는 총 167건이다. 39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투기 행위 및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 오는 5월 19일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 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먹고 살 수가 없다, 임금 올려달라”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연금 수급자와 퇴직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동물 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대 일부는 자신이 받는 월 수령액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이를 상징하기 위해 시위 현장에 배다귀를 들고 나왔다. 베네수엘라 연금 수급자와 퇴직자들이 받는 월 수령액은 대략 미화 30달러(약 3만6천 원)로 알려졌다.

우크라 민간인 학살 혐의하는 독일 시위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구독일 의회 건물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전장 희생자를 상징하며 바닥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